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르 1,12-15 (2024/2/18, 사순 제 1 주일)

얼핏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쉽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실 수 있으신건가? 예수님도 우리처럼 유혹 앞에 흔들리셨다면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해도 괜찮은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 전에 유혹을 받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참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에 얼마든지 유혹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유혹의 자리인 광야로 이끈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칫 이를 두고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곤경으로 내몰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의 첫 시작에서부터 악과 맞서 싸워 이기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악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병행 복음인 마태오와 루카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3 차례에 걸친 악의 유혹에 대해서 하느님 말씀으로 이를 물리치시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느님께 의탁할 때 악을 이겨낼 수 있음을, 더 나아가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순의 첫 시작, 악의 유혹에 대한 승리가 선언되는 지금 예수님 곁에 더 굳건하게 머무르면서 그러지 못했던 지난날에 대한 참회와 회개의 여정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화 묵상



〈후안 데 플란데스,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악마, 1500-1504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마귀는 수도자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복을 입고 있으면 오른손에는 목주를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는 뿔이 달려 있고, 발은 물갈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힘으로는 악마의 본질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화려한 걸모습에, 익숙함에 우리의 판단은 속아 넘어가게 될 것이기에 늘 하느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느님의 보호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